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잠언 16:3)

발행처 :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우기전 편집국장 : 이종국

'95 예수사랑 큰잔치 모두 마쳐

새신자 총 3,217명 중 1,715명 결신하여 53.3%의 높은 결신율
이제는 양육에 힘쓰며 돌아보는 일이 중요
각 부서는 여름계절학교 체제로 전환, 새로운 다짐들



성숙한 백성으로 양육시키는가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새가족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돌볼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새가족부 양육위원과 교구 양육위원들이 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오래전부터 교육하며 준비하여 왔다.

이번에 결신한 사람들은 각 교구 교역자들이 이미 심방에 들어가 일일이 확인하며 돌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들을 위해 더욱더 뜨거운 정성으로 기도하고 이들이 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인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95 예수사랑 큰잔치가 지난 주일 저녁 찬양예배때까지 하여 모두 끝났다. 금년도 예수사랑 큰잔치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앞 주간에 초청전도집회를 실시하여 복음을 자세하게 들을 기회를 주었다.

6월 7일(수)~ 9일(금)까지 실시한 초청전도집회에는 매일 2,5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지난 해에 비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매일 200여명의 새신자들이 참석하여 복음을 들었다.

예년과 달리 조용하게 각 지회별로, 각 교구별로 진행된 금번 예수사랑 큰잔치가 주일 각 부 예배시간마다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번 기간중에 새로 우리 교회를 찾은 사람은 총 3,217명이었고 그중에 1,715명이 결신하여 결신율이 53.3%라는, 전도집회에서는 흔히 일어날 수 없는 결신율을 보였다. 또한 자진해서 등록한 사람이 681명이나 되어 예년에 비해 알찬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교구별로도 큰 차이가 없이 모든 교구가 고른 결과를 맺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날에 얼마나 인도하여 왔는가 아니고 이제부터 이들을 얼마나 교육시켜 하나님의

들이 스스로 설 때까지 늘 보살펴주는 성숙한 성도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또한 교회는 그동안 예수사랑 큰잔치에 쏟았던 열심과 노력들을 여름행사로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 금년 여름에는 특별히 교역자 성지연수와 대학·청년부의 해외단기선교훈련 등으로 한층 열기가 더할 것이다.

부목사 청빙 및 사임

부목사로 선교위원회와 고등부 지도로 일하던 김창수 목사가 사임했다. 김목사는 서대문에 있는 동산교회 담임목사로 가게 됐다.

교회는 윤종일(만 33세)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했다. 윤목사는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 강남교회의 부목사로 있었다.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원 지도를 맡게 된다.

또한 한근수 목사(만 36세)를 청빙하여 공석이 된 고등부 지도에 임명했다. 한목사는 총신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일교회(서울 남노회)에서 고등부 지도 및 청년부, 심방 사역 등으로 일해 왔다.

전 교역자 성지연수 실시

1차 6월 26일~7월 8일(12박 13일, 성봉환 목사 외 25명)
2차 8월 21일~9월 2일(12박 13일, 김찬곤 목사 외 24명)

우리 교회의 전 교역자가 성지연수를 떠난다. 예루살렘 성지연구소를 설립키로 하면서 먼저 우리 교역자의 성지연수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4월 정기당회에서 통과된 교역자 성지연수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에게 해당된다.

제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게 될 본 연수는 각 12박 13일로 1차는 6월 26일~7월 8일까지, 2차는 8월 21일~9월 2일로 결정됐다.

교회는 교역자들의 1/2 정도가 공석

인 경우를 대비하여 공석중에 협력할 교역자를 배정하여 놓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연수에는 개인당 200여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교회에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토록 했다.

성도들은 이번 연수를 위해 기도로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연수명단 및 부재중 업무대행 협력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제2차	
	성봉환(이종대)	오인숙	이종대(성봉환)	윤인숙
제1교구		최순복	한용관(현상민)	김영숙
제2교구			계선화	
제3교구	최명자			
제4교구	박정규(김찬곤)	배옥인	이흥성(조윤재)	정양순
제5교구		박종화	송향자	
제6교구		장혜순	김광국(정광옥)	이옥자
제7교구	현상민(한용관)	장영자		최지혜
제8교구	조동원(김희수)	황정순		박희자
제9교구	조윤재(이흥성)	정연희		김정숙
제10교구	정광옥(김광국)	현정남		김정순
제11교구		손미희	김희수(조동원)	신동자
제12교구	김정자	임태주	박경한(장우천)	(정복인)
제13교구		오정숙	김찬곤(박정규)	김옥윤
	장우천	한영준	변춘옥	
	김동석	정복인	장봉생	이두란
	최영찬		윤삼중	구명신
	장경철			
영아부	정연희(정양순)		계선화(최명자)	
유아부				
유치부	김정자(김옥윤)			
초등1부	손미희(김정숙)			
초등2부			송향자(장영자)	
초등3부	오인숙(최지혜)			
초등4부			윤인숙(현정남)	
초등6부			한용관(김동석)	
중등1부			김희수(최영찬)	
중등2부			김광국(현상민)	
중등3부			이흥성(박정규)	
대학부			장봉생(이준경 전도사)	
청년1부	김동석(김의환)			
사랑부			박경한(장우천)	
새가족위			윤삼중(조윤재)	
새가족부	박정규(외부장사)			
소망부			김찬곤(조동원)	

* ()의 이름이 부재중 협력할 교역자이다.



충현간단

● 요한계시록 강해 40 ●

그리스도의 재림 (1)

(계 19:1-10)

19 장에 보면 네 번에 걸친 할렐루야 찬양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이 찬송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기쁨의 찬송입니다. 짐승의 왕국 바벨론의 멸망으로 7년 대환난의 끝이 나고 이제는 침울함이 노래로, 어두움이 빛으로, 황량한 심판의 날이 축복의 밝은 날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1. 네 번에 걸친 할렐루야 찬송

(1) 첫번째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네 번에 걸친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에서부터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첫번째 할렐루야가 울려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는 두 말할 필요없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군천사들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했듯이 첫번째 할렐루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첫번째 할렐루야를 레만 스트라우스(Lehman Struss)는 '구원의 할렐루야'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시라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첫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심판(참되고 의로운 심판), 그리고 순교의 피를 신원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섯 가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2) 두 번째 할렐루야

3절을 보면 두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누가 찬송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이 천군천사와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는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찬양을 '의로운 보응의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고 했는데 연기가 나는 것은 타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타고, 물질이 타고, 문화가 타고, 모든 것이 다 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끝없이 불탄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할렐루야

4절에 보면 이십 사 장로와 네 생물이 세 번째 할렐루야를 부릅니다. 여기 이십 사 장로는 교회의 대표들, 구원받은 자의 대표입니다. 또 구약과 신약의 대표로 구약의 열두 지파와 신약의 열두 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제 이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네 생물의 정체는 요한계시록 4장 6, 7절에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찬양을 '성취의 할렐루야'라고 하는데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찬송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

서 본문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무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4) 네 번째 할렐루야

6절에 보면 네 번째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7절의 '메시야' 중에 나오는 '할렐루야' 때문에 이 찬송의 내용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찬송의 가장 강조되는 내용은 '주님이 왕중의 왕이고 그가 전세계 우주만물을 통치하신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할렐루야를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할렐루야'라고 합니다.

이때에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할렐루야 찬양은 마치 때에 따라 우리 예배에 교회의 연합찬양대가 서는 것과 같이 천군천사 합창없이 모든 것들로 구성되어진 그런 연합찬양대의 우주적인 송영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관한 이 네 번째 마지막 할렐루야로 찬송은 절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울려퍼지는 할렐루야 찬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2. 어린 양의 혼인잔치

(1) 유대인의 혼인에 관한 관습

유대인의 혼인 관습도 우리나라(약혼식, 결혼식, 잔치)하고 비슷해서 세 단계인데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뀝니다. 제일 먼저는 정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잔치가 먼저 있고 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이들의 정혼식은 우리의 약혼식과는 달리 법적인 의미가 훨씬 큼니다. 그들은 정혼하면 몸만 같이 살지 않을 뿐 결혼처럼 법적인 의무와 권리가 있어서 만약 정혼을 했다가 파혼하게 되면 마치 이혼하는 것처럼 수속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그 한 편이 어떤 부정으로 파혼하게 될 때는 돌로 쳐죽이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 관습은 성년이 되기 전에 부모들끼리 짝을 정해서 정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신랑 편에서 결혼지참금을 지불하는데 돈이 없을 때는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7=14년을 노예생활을 한 것처럼 몸으로라도 때워야 합니다. 이렇게 신랑이 먼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면 신부측에서는 그 집의 부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신랑의 집으로 올 때에 노예와 함께 금은 보석 같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에는 결혼지참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몸을, 그의 피를 결혼식 지참금으로 우리에게 지불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충현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지참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2) 어린 양의 혼인잔치

7-11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교회입니다. 충현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지참금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마포(細麻布)란 이름처럼 베 중에서도 아주 가늘게 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굵은 베옷은 장례식이나 슬픔을 뜻할 때, 또 회개할 때 입었고, 가는 베실로 곱게 짠 세마포옷은 제사장들이나 권세있는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의의 세마포옷을 입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는데 이 세마포옷은 속옷과 겹옷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속옷은 칭의의 옷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바쳐 만드신 똑같은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신자들이 다 똑같이 입습니다. 그러나 겹옷은 실제적인 의의 옷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으로 각자의 공로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하늘의 보석이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치 벗은 것과 같이 형편없는 옷을 입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고전 3:10-15)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공로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마치 속옷만 입은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잔치에 청함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복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의의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합니

다. 또 이 땅에서 많은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늘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3.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사도 요한

마지막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하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만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 앞에 절을 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드리려고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경배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실수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수에 대한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천사 자신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그들에게 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해도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영광을 받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줄 깨달아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역경 속에 처할 때도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기를 우리의 신랑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과 기쁨으로 봉사한 후에 찾아오는 감사와 찬양

서혜정
(청년1부 부회장)

◀ 예수사랑 큰잔치 봉사를 마치고 ▶

조금은 무더운 6월의 햇살.
그 햇살을 가르며 예수사랑 큰잔치의 성대한 막이 열렸습니다. 청년1부에게 주어진 임무는 안내와 봉사였습니다. 막이 오르기 전의 긴장과 두려움처럼, 봉사를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Q.T의 은혜속에 저를 이끄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지도자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깨달음 중에, 저의 자세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 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민수기 1장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 지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예수사랑 큰잔치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의 수를 파악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실례를 무릅쓰고 각 조장들에게 연락하여 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봉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전체 통계를 내어보니 필요한 현장 봉사인

원 100명을 조금 넘은 수였지만 마음에 뭔가 미흡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사당일 아침 일찍부터 모여든 청년들의 밝은 모습과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에 참여하는 계수의 성대함은 마음을 뿌듯하게 했습니다. 사랑의 미소로 안내하였고, 힘겨운 식당봉사도 서로의 손길을 통해 훌륭히 감당해내었습니다.

이렇듯 열심과 기쁨으로 봉사하는 청년들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적잖이 감동되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면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고, 우리들의 봉사를 통해 큰 영광을 이룬다는 기쁨으로 청년부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였습니다. 청년부의 지원이 단순히 교회 행사를 돕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몸된 교회의 기관으로써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소 교회의 활동과 행사에 별로 큰 마음을 갖지않던 청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중헌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깊이있게 느끼는 계기가 됐고 온 교회와 교우가 한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교회의 전체적인 행사에 청년부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청년1부의 부분적인 활동보다는 청년전체를 보는 안목과 감각을 길러 그리스도의 몸된 부분으로서 그 주춧돌의 역할을 굳건히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

을 이루는 교회의 성장에 동참하여 평소 기관중심의 이기적인 벽을 깨고, 기관끼리의 유대관계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이하 성도님들께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격려해주시고 간식을 나눠주

시는 사랑가운데 우리는 중헌의 한가족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떡 나눠주는 임무를 끝으로 100여명의 청년들이 교회 앞마당에 둥그렇게 둘러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찬양드리면서 보람과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빨개진 콧잔등을 보면서 서로 흐뭇해 하였고 아낌없는 격려가 풍성히 오가는 동안 선선한 저녁 바람이 청년들의 피곤함을 식혀주고 있었습니다.

▼ 예수사랑 큰잔치에서 안내와 봉사 일을 담당한 청년1부 회원들. 시간 시간 입구에 서서 인사하며 안내를 했다. 대학부는 교회외곽 차량안내 업무를 맡았다.

▼ 저녁 찬양예배를 마치고 떡을 나누어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대학부, 청년부 회원들



□ ... 우리 교회당이 크고 각자 맡은 부서에서 주일 하루종일 봉사하다보니 1년 동안 교회에 나와 봉사하며 출석해도 한번도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 실정. 그러나 예수사랑 큰잔치 날은 온 교우가 본당 앞 뜰 천막을 경유하기에 대부분의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한층 잔치 분위기가 고조. 사람들은 웃으며 '지주 예수사랑 큰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 ... 해가 더해가면서 예수사랑 큰잔치가 점차 자리잡아 가는 모습. 모든 교인들이나 진행자들이 모두 안정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었다. 여전도회 임원들은 초청전도집회 때부터 주일 각부 예배까지 한복을 차려입고 나와 잔치날의 분위기를 한결 살려 주었다.

□ ... 각부 교회학교, 특히 1부 교회학교는 이날 예배만 드리고 분반공부가 없이 그냥 귀가하고 부모와 함께 집에 돌

아갈 어린이들은 교회의 온 뜰을 다니며 즐겁게 놀기도. II부 교회학교 학생들은 오후 시간 집회실에 모여 교제를 나누며 모처럼 한가한 주일을 보내기도.

□ ... 저녁 찬양예배 후 청년1부와 대학부 학생들이 떡을 나눠주는 일을 담당. 너무나도 철저하게 교육받아(?) 한 사람에게 하나씩만 나눠주어 실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마쳐졌다. 끝난 후 다함께 둘러서서 해넘어가는 오후 서늘한 바람 속에서 하루의 일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다 마치고 교회를 중심으로 인접하여 있는 집들을 방문하여 '오늘 교회에서 잔치를 했기에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하며 떡을 일일이 돌리기도 하여 명실상부한 예수사랑 '큰잔치'를 했다는 마음들을 갖기도 했다.

예수사랑 큰잔치 이모저모

□ ... 예수사랑 큰잔치는 본당 앞 뜰에 각 교구별 천막을 치면서부터 그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천막을 치는 손길도 경쾌하게, 초청전도집회 첫날인 6월 7일(수) 저녁부터 잔치분위기가 나기 시작, 각 교구마다 새신자가 많이 오기를 기대하는 조바심 가운데서도 모두 들뜬 기분.

□ ... 금년 예수사랑 큰잔치의 당일인 주일은 예배당 주변의 모든 차량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생각보다 훨씬 주차관리나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계속적인 홍보와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차량운전자들이 차량관리위원의 인도에 잘 따라 주었기 때문. 또 대학부 학생들이 교회 주변 모든 외곽도로에서부터 차량관리를 담당해 한 몫 거든 것도 큰 수확.

대학부 회원들은 교회 진입하는 모든 진입로에서 일방통행 표시판을 들고 하루종일 수고. 일부의 사람들은 몇 사람 다니지도 않은 길에서 있을 필요가 있는 나고 이야기도 하지만 피켓을 들고 서있

는 것을 보면서 보행자나 운전자가 모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라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어 차량관리에 한결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안다면 대학부의 차량관리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았을 것이다.

□ ... 모든 사람들이 새신자 데려오기를 전개함에 따라 교회내의 모든 봉사가 청년1부에 배당, 안내와 의료 등 봉사를 담당. 청년1부 회원들은 하루종일 교회 진입로에 일렬로 서서 '예수사랑 환영합니다'를 외치며 인사하는 모습. 인사를 받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당황하고 쑥스러웠지만 오늘이 교회의 잔치날이라 모두가 즐거운 표정. 의료상자는 있는데 안의 내용물이 기본적인 것도 없어 당황한 일도 있었지만 현역 간호사 회원들의 도움으로 잘 넘기기도. 또한 식당 지원 봉사를 하여 식당 안팎을 깨끗하게 정리, 청소하자 매 주일 청년1부에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당황하기도.

□ ... 청년1부의 안내는 초청전도집회 때에도 했는데 둘째날 시작 30분 전부터 쏟아지는 소나기에 비를 맞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어 우산을 들고 진입로까지 나아가 우산없이 오는 분들을 모셔오는 극상(?)의 안내를 하기도.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 참가단 모임 안내

지난주 길림성기독교신학원 기공식에 참가를 신청한 분들은
다음과 같이 모임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6월 20일(화) 오후 6시
· 장소 : 만나홀

당일 지참물

1. 여권 소지자
 - 1) 여권
 - 2) 사진 2매
2. 여권 미소지자
 - 1) 사진 5매
 - 2) 주민등록증
 - 3) 주민등록등본 1통
 - 4) 여권 발급 인지대 45,000원

3. 여행 예약금 300,000원
(전체 여행비용 1,000,000원중)

당일 행사

1. 경건회 및 기도회
2. 여행 설명회와 주의 사항
3. 공지사항
4. 설문조사

기타

당일 연락없이 불참자는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함.

교회요람 누락

교회요람의 주소록 중 누락 부분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원용철 집사(제4대 안수집사)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백마마을 한성
Apt. 502-103 (집) 0344-904-1063
(사무실) 262-3793

장소 변경

오늘부터 일부 교회학교 및 교구도
임 장소가 변경됐다.

- 청년2부 → 교육관 414호
- 장년1부 → 교육관 407호
- 제5교구 → 본당 지하1층 105호



금주에 기도할 제목

1.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소서.
· 김창인 목사 : 6/20(화) 예수사역훈련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
· 신성중 목사 : 6/20(화) 하사관학교 종교강연,
6/21(수) 동서울노회 주교연합회 교사심령부흥회 설교
6/22(목) 충청북지관 개관예배 설교
2. 초청전도집회와 예수사랑 큰잔치 때의 결신자들이 등록자가 되게 하시고 등록자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자와 양육위원들과 교구, 지역, 구역에서 잘 양육하게 축복해 주소서.
3.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시작 10분전에 도착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림으로써 은혜 충만하게 하시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4.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직분에 겸손히 충성하면서 각 구역과 부서별 공동체가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시며, 환자들의 영육을 소성케 하시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소서.
5. 하나님이 축복하사 공의와 사랑이 조화된 선진국으로서 선교하는 통일 한국이 되게 하시고, 김영삼 장로님과 손명순 권사님에게 믿음과 지혜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세계화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선서가 공명하게 치뤄져 필요한 일꾼이 선택되게 하소서.
6. 제2교육관 공사와 길림성기독교신학원의 설립이 하나님의 은혜중에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축복하소서.
7. 교역자 성지연수(1차 : 6월 26일-7월 8일, 2차 : 8월 21일-9월 2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 이 사람을 만나보니 ▶

예수사랑 큰잔치 때 태신자 200명 초청한 / 박 윤 석 권사



200여명이나 태신자를 초청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벽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 남편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린 눈물의 기도와
수십년을 한결같이 동네 주민들을 사랑과 미소로 대해오시고 베풀어오신 결과이다.

네 번째 예수사랑 큰잔치가 막을 내리고 들뜬 술렁임도 조금씩 가라앉는 시간에 이번에 태신자를 200여명이나 초청한 성도가 있어서 놀라움을 가지고 만나보았다.

▶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태신자를 초청할 수 있으셨는지요? 그리고 초청하신 태신자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한 분들은 주로 제가 살고 있는 행당2동에 사시는 분들로 늘 만나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연령층은 다양한데 다른 곳에서 계시는 분들도 오래전부터 저와 관계를 가져온 분들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새벽예배를 다녀온 후 오전 중에 집안 일을 다 끝내고, 오후에는 거의 매일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보통 하루에 전도지를 300장 정도 돌립니다.

결혼하고 20년이 훨씬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오늘은 몇 통으로 내일은 몇 번으로 방이 큰 집에 양해를 구하고 동네 어른들을 모셔서 수박이랑 대접하며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수 적어준 태신자 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새벽마다 교회에서, 가정예배시에 남편과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는지요?

▷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를 잘

아시던 분들은 "내가 저 아줌마 같으면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며 대부분 호의적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핍박도 있습니다.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론 물세례도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핍박당하시고 머리둘 곳도 없으셨는데 핍박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만 먹은 자가 물컨다는 속담도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어야 하는데 여유가 없어 마음껏 베풀지 못할 때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 그렇게 많은 분들을 전도하고 초청할 수 있었을 때는 권사님만의 특별한 전도방법이 있었을 것같은데요. 성도님들께 소개해 주시지요.

▷ 별다른 방법은 없고 그저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기회있는데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회자랑, 목사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낼다고 멸시하고 욕을 해도 계속 따스한 미소로 응대하면서 전도하면 그들도 할 말을 잃고 제 말을 들어 줍니다. 또한 가지는 김창인 목사님께서도 늘 "인사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셨듯이 저는 누구를 만나도 정말 인사를 열심히 합니다. 어버이날에는 동네 어른들께 꽃 한송이라도 달아드리고 고기 한 근이라도 사들고 찾아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도에 플러스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많이 뿌리시고 많이 거두시니 보람도 많으시겠지요?

▷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기쁨도, 거두는 기쁨도 정말 너무나 큼니다. 이번에도 예수사랑 큰잔치를 앞두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편한 운동화를 신고 다녔는데도 발바닥이 온통 다 부르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런 치도 않았습니. 특별히 이번에 초청된 사람 중엔 무당도 있었는데 계속적인 사랑을 베풀자 처음엔 그렇게 완강하던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는 못했지만 저를 통해서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그 밖에도 전도한 사람 중에 집사도 여럿이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 밖에 없습니다.

조금 아까도 이번 예수사랑 큰잔치에 나오지 않은 한 청년을 만나 같이 식사하고 등록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실 것인지요? 전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사실 저는 누구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새침데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이 사명이니까요.

전도할 때 받는 핍박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다만 물심양면으로 더욱 많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권사님의 말씀에 문득 콧끝이 시려왔다.

박윤석 권사는 제9-2교구 행당2구역에 살고 계시는데 7년째 예배다부 부감으로 수고하고 있으며 에스더여전도회 9-2지회 회장이기도 하다. 남편 전용해 집사님 사이에 4남매를 두고 있다.

이번에 권사님이 200여명이나 태신자를 초청할 수 있었던 열매 뒤에는 남편의 도움이 있었으며 또한 그 비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새벽예배와 가정예배를 통해 남편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린 눈물의 기도와 수십년을 한결같이 동네 주민들을 사랑과 미소로 대해오시고 베풀어오신 결과이다.

이번에 초청된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행당2동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록 이번에 결신하고 등록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태신자 작성 및 초청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과연 그렇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한다. 지면상 권사님이 들려주신 전도에 대한 더 많은 간증들을 신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박윤석 권사님과 같은 전도의 열매를 모든 총현의 식구들이 다함께 거둘 수 있기를, 그래서 어서 속히 땅 끝까지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기도한다.